

법원도 인정했다

포스코는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스코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라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인정

“직간접 업무 지휘·명령”

현대제철 이어 두 번째로 철강업계 소송 파급 예상
〈경향신문 2016.8.18.〉

**“아, 나도 정규직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15명 승소**

광주고법 17일 사내하청 불법 파견으로 판단...해고 노동자 6명도 모두 포함
2012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뒤 자동차·철강 업계로 확산
〈한겨레신문 2016.8.17.〉

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 민사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8월 17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5명이 (주)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사건번호 광주고법 2013나1128)’에서, 15명 전원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인 (주)성광기업, (주)덕산 소속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운반, 롤 운반, 스크랩 처리, 정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철강 업종에서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① 연속흐름 공정에서의 도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②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포스코 협력업체 1만 8천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 김태욱 변호사 (소송을 담당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저는 원래 포스코 협력업체 정규직인데, 상관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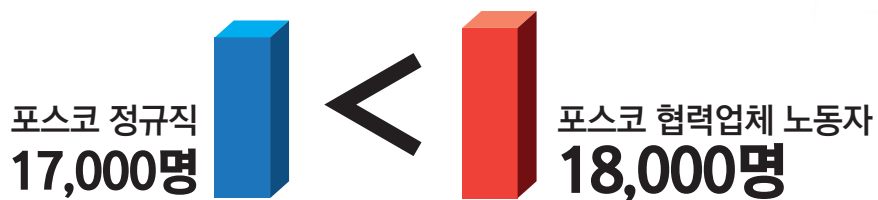
나는 포스코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 상관 없다고요? 천만에요!

이번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포스코 협력업체인 (주)성광기업, (주)덕산의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포스코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일하고도 임금은 절반만 받는 협력업체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봅니다.

법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포스코의 정직원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가 포스코 정규직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내유보금을 47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못 받고 더 많은 일을 해온 1만 8천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입니다. 포스코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불법파견 범죄 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연락주세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061) 762-2956

**본인이나 가족이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라면
포스코 정규직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15명이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고 포스코가 1만 8천명을 그냥 정규직 시켜줄까요? 지금까지 그런 기업은 없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포스코는 그 사람만 정규직 시킬 것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손에 손잡고 금속노조와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하여 스스로 권리를 찾아 일어서야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포스코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포스코 정규직이 되는 길입니다.

정규직화는 이미 대세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확정 판결을 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는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주·전남만 하더라도 2014년 기아차광주공장, 2015년 금호타이어, 2016년 현대제철 순천공장, 포스코 광양제철소까지 사내하청(협력업체) 노동자 521명이 연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방법원에서 1심 소송 중인 노동자는 총 734명이고,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는 총 1,251명입니다.

